

최신 폰만 지원되는 고퀄리티 모바일게임 ‘이젠 대세’

넥슨 MMORPG 게임 ‘트라하’
최소사양이 ‘갤S7’ ‘아이폰6S’
최고의 그래픽 성능위해 높아

“‘갤럭시S8’이나 ‘갤럭시S9’이 아니면 버거울 정도로 그래픽과 게임 성능을 최고로 만들려고 한다.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할 것이다.”(엔씨소프트 ‘리니지2M’)

“거대한 오픈월드 구축해 최소한 ‘갤럭시S7’이나 ‘아이폰6S’ 이상에서 플레이가 가능하다.”(넥슨 ‘트라하’)

넥슨, 엔씨소프트 등 대형 게임사를 위주로 최소 스마트폰 지원기기 사양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몇 년간 공을 들여 준비한 대작의 경우 그래픽 수준과 담고 있는 콘텐츠 양이 방대해 갈수록 사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다만, 일각에서는 고사양의 모바일 게임이 늘어나며 이용자의 피로도도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하이엔드 MMORPG ‘트라하’ 대표 이미지.



넥슨 ‘리니지2M’ 대표 이미지.

엔씨소프트

2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 18일 정식 출시를 앞둔 넥슨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트라하’는 최소 사양 모델이 삼성전자의 갤럭시S7과 애플의 아이폰6S 이상이다. 넥슨에서 나온 게임 중 모바일 기기 최소 사양이 가장 높다.

올해 출시 예정인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M’의 경우 모바일 기기 최소 사양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성구 엔씨소프트 리니지유니트장은 지난해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게임의 그래픽과 성능을 최고로 만들기 위해 모바일 기기 사양을 높

였다고 설명했다.

실제 넥슨의 트라하는 게임 내 설산, 사막, 초원 등의 콘셉트로 방대한 크기의 오픈월드를 구축했다. 현재 제작된 오픈 월드 면적만 서울 여의도 지역의 16배에 달한다.

넥슨 관계자는 “오픈월드를 강조한 MMORPG이다 보니 콘텐츠 양이 방대하고, 이를 담기 위해서 용량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M 또한 온라인 게임 ‘리니지2’의 오픈월드를 풀 3D 그래픽으로 모바일 환경에 구현했다. 제약 없는 자유도와 모든 플레이를 즐기는 ‘심리스 오픈월드’를 구현했다. 이는 국내 모바일 MMORPG 중 가장 큰 규모가 될 전망이다.

올해 대작의 움직임은 기존 모바일 게임이 더 많은 이용자를 흡수하기 위해 낮은 사양의 스마트폰을 최소 사양으로 설정한 것과는 다른 행보다. 게임 경험 수준이 높은 국내 이용자를 공략하기 위해 최고의 그래픽과 콘텐츠를 내건 셈이다.

최근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길어져 보

릿고개를 맞은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게임을 길러 콘텐츠로 점찍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10’ 역시 최고 사양의 그래픽을 구현하는 트라하, 엔씨소프트 ‘리니지 M’, 가상현실(VR) 게임 등을 선택하며 차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야말로 게임을 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바꾸는 시대가 열린 셈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기의 최저 사양이 높아진 만큼 이용자 풀(pool)이 줄어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보는 시각도 있다. 또 너무 높은 퀄리티와 조작도를 선보이는 게임의 경우 이용자의 피로도도 높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하이엔드 모바일 게임의 경우 모든 이용자들이 그 게임을 즐길 수 없고, 많은 조작이 필요해 이용자 피로도가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오히려 복잡한 모바일 게임 대신 반사효과로 간단하고 직관적인 캐주얼 게임을 찾는 이용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김나임 기자 silkni@metroseoul.co.kr



휴앤쇼핑, 공공성 강화 위해 ‘준법심의의뢰’ 발족
휴앤쇼핑은 19일 서울 마곡동 본사에서 ‘준법심의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준법 방송’ 구현을 위해 자체 심의기준과 방송심의제내 내부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등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준법심의위원회는 준법 방송 실천을 위한 각종 활동과 고객보호를 위한 의사결정기구다. 위원회는 또 보다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휴앤쇼핑 이형록 대외협력부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코웨이, 친환경 물병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코웨이는 서울 중구 본사에서 친환경 물병(Bottle)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코웨이는 지난 12월부터 공모전 참가자를 모집하고 총 24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4개 팀을 이루어 코웨이 임직원 및 각계 전문가로부터 멘토링과 자문을 받아 물병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켰다. 분리형 구조로 세척이 쉽고 알림 기능을 탑재해 외출 시 잊지 않고 물병을 챙겨나갈 수 있도록 한 ‘Blue Bell’ 작품이 대상에 선정됐다. 대상팀에게는 500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됐다.

렉서스코리아 LS 고객위한 리워드 프로그램 출시

렉서스코리아는 2019년형 LS 출시를 기념해 렉서스 프리미엄 멤버십 내에 ‘LS 리워드 프로그램’을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렉서스의 플래그십 모델인 LS는 ‘GA-L(글로벌 아키텍처-럭셔리)’ 플랫폼을 통해 역동적이고 대담한 이미지를 구현했다. 운전 집중할 수 있는 드라이빙 공간과 최상의 안락함이 융합된 인테리어는 물론 23개 스피커의 마크레빈슨 레퍼런스 3D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을 갖췄다.

특히 2019년형 LS부터는 한층 진보한 ‘렉서스 세이프티 시스템 플러스’가 장착돼 안전성이 더욱 강화됐다.

또한 렉서스 프리미엄 멤버십에 가입



한 2019년형 LS 500h 신규 구매고객 모두에게 국내 럭셔리 호텔 숙박권 2매와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 25만 마일 적립을, 2019년형 LS 500(가솔린) 신규 구매고객 모두에게도 국내 럭셔리 호텔 숙박권 2매를 증정한다.

/정연우 기자 yw964@

제주항공, 조종사 양성 위한 모의비행장치 운영

8개 국적항공사 중 세번째 설치
비정상상황 회복훈련 시현 가능

제주항공이 운항훈련 품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조종사 양성을 위해 도입한 모의비행훈련장치(시뮬레이터) 설치를 마치고 운영에 나선다.

20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시뮬레이터는 비행 중 발생할 수 있지만 실제 비행기에서 훈련할 수 없는 여러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 제주항공은 8개 국적항공사 가운데 시뮬레이터를 직접 구매해 운영하는 세번째 항공사가 됐다.

제주항공은 2017년 12월 세계 최대 시뮬레이터 제작 및 항공인력 양성기업인 CAE와 시뮬레이터 2대 구매와 운영에 관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이번에 운영을 시작한 시뮬레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1대는 최근 구매 계약을 체결한 보잉 737-맥스8 도입에 맞춰 운용할 계획이다.

600명에 달하는 제주항공 조종사들은



제주항공 조종사들이 지난 19일 오후 1시30분 김포국제공항에서 진행된 시뮬레이터 도입행사에서 시뮬레이터 훈련을 시연하고 있다.

경력과 상관없이 매년 2회 이상의 교육을 받는다. 훈련을 통해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 향상은 물론 조종실 내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한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능력을 높이게 된다.

제주항공이 도입한 시뮬레이터는 최신 기종으로 비정상상황 회복훈련인 UPRT를 시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계기 오류나 난기류 등의 요인으로 인해 항공기가 정상적인 자세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훈련으로, 항공기 운항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정상상황에 대한 조종사들의 대처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제주항공은 지난 2월19일 오후 1시30분 김포국제공항에서 이석주 제주항공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과 확대하 한국항공공사 조종인력양성센터장 등 외부 손님이 참석한 가운데 도입 축하행사를 진행했다.

/양성문 기자 ysw@

공영주차장 관리, 스마트해진다

KST파킹-노원구서비스공단
시스템·솔루션 개발 업무협약

스마트 주차서비스 기업 KST파킹이 노원구서비스공단과 거주자주차-공영주차 관련 시스템 및 솔루션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일 KST파킹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노원구의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주차장의 스마트 주차시스템 및 관련 솔루션 개발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노원구의 주차공간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 및 기술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KST파킹은 ‘마카롱택시’로 알려진 한국형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 KST 모빌리티의 주차 사업 관련 자매회사다.

마카롱파킹이라는 전략 브랜드를 앞세워 스마트 주차 플랫폼 기술 개발과 민영주차장 위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자체 개발·생산한 IoT(사물인터넷) 기술 기반의 차량 검지센서(차량 인식센서)와 통



합 주차관리센터를 연동한 스마트 무인 주차관리 플랫폼을 보유했다.

특히 KST파킹의 스마트 무인주차관리 플랫폼은 기존에 관리가 어려운 거주자 전용 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의 무인화를 가능하게 한다. 주차면에 설치되는 Io

T 기술 기반 차량 검지센서가 핵심 기술이다. 주차면 차량진입을 IoT 차량 검지센서가 감지하면 이 정보를 관리센터로 전송하고, 관리센터는 전달받은 주차면 정보를 ‘사용 가능한 주차장’ 정보로 가공해 전달한다.

/양성문 기자